

「十字軍」(1937-1938)에 실린 김재준 목사의 창세기(1-4장) 번역의 특징

이환진*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서
시온의 追憶에 우리는 울었노라
거기 있는 버드나무에
거문고를 우리는 걸어 뒀노라

略奪者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殘害者가 우리에게 좋아하라 하더니라
-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 허더니라 -
아 그러니 어찌 異邦의 땅우에서
여호아의 노래를 부를수 있을건가?

오 예루살렘아!
하마나 내가 너를 잊어 버릴진대
내 오른손이 손재조를 잊게하라
하마나 내가 너를 기억 안할진대
내 혀가 입천정에 들어볼게 하여지라 -시 百三十七편-1)

1. 들어가는 말

장공 김재준 목사는 1930년대에 간도(間島) 연길 부근의 용정(龍井)에 있는 은진중학교(恩眞中學校)에서 3년간 가르치면서 「십자군」(十字軍)이라는 저널을 펴냈다. 장공은 이 저널에 “맨 처음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에서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김재준, “위로의 말씀 -주님을 쳐다보라-”, 「十字軍」第一卷第三號(1937년 10월 29일), 1쪽에서 인용한다. 본고에서 논의할 창세기의 번역 특징을 살피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장공 김재준 목사의 시편 번역. 이 시편의 일부가 한신대학교 출판부, 『성서해설(1962-1963)』, 金在俊全集 6(서울: 長空 金在俊 牧師 기념사업회 편, 1992), 44에도 실려 있다.

4장까지 우리말로 번역하여 실었다.²⁾ 다음은 장공의 창세기 번역에 대한 서지사항이다.

창세기 1:1-2:3 -「十字軍」 제1권 제3호 (1937년 9월 13일), 22-24.

창세기 2:4-2:25 -「十字軍」 제1권 제4호 (1937년 10월 29일), 18-19.

창세기 3:1-3:24 -「十字軍」 제1권 제5호 (1937년 12월 14일), 17-20.

창세기 4:1-4:26 -「十字軍」 제2권 제3호 (1938년 2월 17일), 12-13.

이 번역이 특이한 점은 마침 한국에서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이 막 나오던 해라는 점이다. 『개역』이 1938년에 나왔으므로 여러 가지로 『개역』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쉬운 말로 번역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개역』과 비슷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 번역을 읽고 우선 느끼는 첫 느낌은 장공의 창세기 번역이 무척 파격적이라는 점이다. “맨처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어내실새”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맨처음”이라는 말은 『공동번역』(1977)의 “한 처음”이라는 어색한 말보다 훨씬 부드럽다. 선종완 신부가 번역한 『창세기』(1956)의 육필원고에 등장하는 “비롯음에”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이다. 물론 장공의 “맨처음”이 “태초에”(개역)보다도 더 쉬운 우리말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단락 구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벌써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의 사제문서(P)와 야훼문서(J)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야-웨-”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다.³⁾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유형기 박사의 『단권성서주석』에 “여호와”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구역』(1911)과 『개역』(1938) 그리고 『게일-이원모역』(1925)이 “여호와”로 표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는 말도 “『이슈아』(女子)라 이를 부르리니 이는 『이슈』(男子)에서 취해냈음이라”라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을 알 수 있다. 곧 장공은 이 창세기를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접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안개가 땅에서 피어올랐다”라는 말도 “다만 안개(或洪水)가 땅으로부터 늘상 올라와서 원 땅바닥을 축이더라”로 읽었는데, 여기서 “안개”라

2) 이 자료를 필자에게 건네주신 감리교신학대학교의 한국 교회사 교수 이덕주 박사께 감사를 표한다.

3) 일어성서의 경우 1950년대에 關根正雄이 번역한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욥기』에 “ヤハウェ”(야하웨-)라는 표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래 주 10을 보라.

는 말을 “홍수”(洪水)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괄호 속에 넣어 설명한다. 일종의 할주(割註)인 셈인데,⁴⁾ “홍수”라는 번역어는 여러 고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읽기이지만, 지난 19세기와 20세기에 나온 근대 성경번역본은 대부분 “안개”(mist)로 읽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과격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2. 장공의 창세기 1-4장 번역 본문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요즘의 규칙과 다르지만 그대로 신는다. 간간이 절표기가 잘못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 또한 그대로 두기로 한다. 1911년에 나온 『구역』과 같이 절이 표시되어 있다. 곧 한자로 一, 二, 三 등으로 표기하는데 작은 첨자로 인쇄되어 있다.⁵⁾ 이 전통은 『개역한글판』(1961)까지 이어진다.⁶⁾ 절수가 이십절 이상 넘어가면 “이십”은 “二十”으로 표기하지 않고 “廿”(스물 입)으로 표기하며 “삼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三十”으로 표기하지 않고 “卅”(서른 삼)으로 간결하게 표기한다. 역시 『구역』 전통이다.

2.1. 창세기 1:1-2:3 (「十字軍」 第一卷 第三號 [1937년 9월 13일], 22-24쪽)

『맨처음에』(창세기) 一〇一~二〇三 金在俊 新譯

맨처음 하나님^一이 하늘과 땅을 지어내실새^二 땅은 뒤섞여 형상없고 어두움이 깊은바다우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이 그물우를 덮으셨는데^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빛이 있더라. ^四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겨여기시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시고 ^五 하나님이 그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젯날 이더라.

4) 할주(割註)는 성경 본문에 번역 주를 집어넣은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한문성경 『대표본』(1854)에서 가끔가다 이러한 편집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 『시주교역』(1902)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5) 참고로 창세기 1:16의 경우 절수가 “七六”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창세기 4:20의 경우도 절수가 “二廿”로 잘못 인쇄되어 있다. 하지만 원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대로 신는다.

6) 『개역개정판』(1998)에 와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등으로 표기하며 작은 글자를 첨자로 표기하지 않고 매 절 앞에 큰 글자로 표기한다.

^六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사이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사이를 난호라 하시고 ^七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랫물과 하궁창 우엿물을 갈르시니 그렇게 된지라 ^八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쨏날이더라.

^九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아래 있는물이 한곳에 모이고 마른땅이 들어나라 하시니 그렇게 된지라 하나님이 마른땅을 육지(땅)이라 부르시고 물모인것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좋게 여기시다.

^{十一}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이 풀과 씨맺는 나물과 그종류대로 씨있는 실과 맺는 과실나무를 땅우에 나게하라하시니 그렇게 되다. ^{十二}그리하여 땅이 풀과 그종류대로 씨 맺는 나물과 그종류대로 씨있는 실과맺는 나무를 나게하니 하나님이 보시고 좋게 여기시다. ^{十三}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쨏날이더라. ^{十四}하나님이 날자와 년한이 하시고되라 ^{十五}또 하늘 궁창우에 빛내는 것이 되어 땅우를 비취라하시니 그렇게 되다. ^{七六}그리하여 하나님이 두 큰 내는것을 맨드사 그중 큰 빛내는 것으로 낮을 차지하게하고 좀적은 빛내는 것으로 밤을 차지하게하시며 또한 별들도「만드시다」^{十七}하나님이 저들을 하늘 궁창우에 두어 땅우를 비취게하시고 ^{十八}낮과 밤을 차지하게하시며 빛과어두움을 갈르게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좋게여기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쨏날이더라.

^{二十}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이 모여사는 생물을 솟하게 내며 새가 땅우 하늘궁창에 날라라하시다. ^{廿一}그라하여 하나님이 크고 괴상한 바다짐생과 및 물이 솟해 생육(生育)하는 온갖 동물들을 그종류대로 지어내시며 또 온갖 나는 새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지어내시니라」하나님이 보시고 좋게 여기시다. ^{廿二}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기를 『낳고 뿌려 바다를 채우며 땅우에서 많어지라』하시다. ^{廿三}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쨏날이더라.

^{廿四}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종류대로 짐짐생과 기여다니는 것(爬蟲類와 그 비슷한것들) 들과 들짐생들을 내(出產)라하시니 그렇게 되다. ^{廿五}그리하여 하나님이 각기 그종류대로 들짐생들을 만드시고 각기 그종류대로 짐짐생들을 만드시고 또한 모든 땅우를 기여다니는것들을 각기 그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좋게 여기시다. ^{廿六}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따라 사람을 맨들자 그러고 그들로하여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짐짐생들과 원파와 및땅우에 기여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廿七}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지어내시다.

남자와 또여자를 그가 지어내시다.

卅八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고 뿌려 땅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를 복종시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우에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다.

卅九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원땅우에 온갖 씨맺는 나물과 모든나
무중 씨맺는 과실나무를 네게 주었으니 이것으로 먹을것을 삼으라 卍三 그리고
땅의 모든 짐생들과 공중의 모든새들과 땅우에 기어다니는 모든생물들에게
는 온갖 푸른풀을 먹을것으로 「주었다」하시니 그렇게 되다. 卍四 하나님이
그 맨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훌륭하게 여기시다. 저녁이되고 아침이되니
여섯째날이더라.

二〇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매 二一 일곱째날 하나님이 그의 하신일을 맞
추시다. 그리하여 일곱째날 그의 하신모든일을 쉰다 쉬시니라. 二二 하
나님이 일곱째날을 복주시고 이를 거룩하게(聖別)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지어내여 맨드신 모든 그의일을 쉰다 쉬신 까닭이니라.

2.2. 창세기 2:4-25 (「十字軍」 第一卷 第四號 [1937년 10월 29일], 18-19쪽)

『맨처음에』(창세기) -2- 二〇四~二五 金在俊 新譯

二四 이것이 하늘과 땅이 지어지던 내력이나니라. 야-웨- 하나님이 땅과 하늘
을 맨드신 날에 二五 들초목이 아직 땅우에 없고 들 나물이 아직 돌아나지 않았
으니 이는 야-웨- 하나님이 땅우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심시오 또 땅을 갈(耕)
사람도 없음이라. 二六 다만 안개(或洪水)가 땅으로부터 늘상을라와서 원 땅바다
를 축이더라. 二七 야-웨- 하나님이 땅엿 먼지로 사람을 비저 맨드시고 생명의
김을 그코에 붙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生靈)이 되니라. 二八 야-웨- 하나님이
동쪽 에덴에 한 동산(公園)을 맨드시고 거기에 그가 비저 맨드신 사람을 두시
니라. 二九 그리고 야-웨- 하나님이 온갖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을 땅으로부터 자라나게 하셨는데 생명나무가 또한 그동산 한가운데 「자라
나게 하시며 선과 악을 아는 나무도 「자라나게 하시다」

卅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동산을 축이게(灌溉) 되었으며 그리로부터 갈라

저서 네 골시 되었는데 ^{十一}첫재「강」이름은 『피손』이니 금(金)나는 『해월라』
온지방을 돌아 흐르는 것이라. ^{十二}그땅에서 나는 금은 훌륭한 것이오 『폴넝』
(一種의 寶石)와 벽옥(碧玉)도 나더라. ^{十三}둘재강의 이름은 『기혼』이니 「쿠쉬」
지방전부를 돌아 흐르는 것이며 ^{十四}셋재강 이름은 『힐데켈』이니 『앗수르』 앞
으로 흘러가는 것이오 넷재강은 『푸라트』 강이더라. ^{十五}야-웨- 하나님
사람을 에덴동산에 갖자 두시고 밭갈고 직히게 하시다. ^{十六}그러고 야-웨-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동산안 어느 나무에서던지
마음대로 먹을수 있으나 ^{十七}다만 선과악을 아는 나무에서는 먹지 말것이니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하시니라.

^{十八}그러고 야-웨-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있는것이 좋지 못하
니 그를 위하여 배필될 돕는 사람을 맨들리라하시다. ^{十九}야-웨- 하나님이
모든 들엿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흙으로 비저맨드시고 사람이 무어라고 이름
짓는가를 보시려하여 그앞에 잇그려 들이니 온갖 생물의 이름이 곧 사람이
이름짓는대로 되니라. ^{二十}그사람이 온갖 짐승과 공중의 새와 온갖 들짐승
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그사람이 그의 배필될 돕는자는 찾지 못하니라.
^{二十一}야-웨-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하시니 그가 잠든지라. 그의 갈
빗대 하나를 취해내시고 그대신 살로 메꾸시다. ^{二十二}야-웨- 하나님이 그 사
람에게서 취해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사람 앞에 들어오게하시니 ^{二十三}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야 말로 내 뼈중의 뼈오

살중의 살이로다。』

『이쉬아』(女子)라 이를 불르리니

이는『이쉬』(男子)에서 취해냈음이로다。』

^{二十四}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그처와 합하여 한몸(살)이 되리로다.

^{二十五}그사람과 및 그의 처 둘다 벗은 몸이로되 부끄러움이 없더라.

2.3. 창세기 3:1-24 (「十字軍」第一卷 第五號 [1937년 12월 14일], 17-20쪽)

『맨처음에』 (창세기) 三〇一~二四 金在俊 謹譯

^{三〇一}그런데 야-웨-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중에 배암이 제일 간교하리라
배암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말 하나님께서 동산안 아무 나무에게서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二 여자가 배암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三 오직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과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

四 배암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五 너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이의 눈이 띠여 선과 악(善과 惡)을 알게 되어서 너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까닭이니라』

六 여자가 보매 그 나무「열매」가 먹엄직하고 눈에 보암직하고 또 그 나무「열매」가,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탐스러운지라. 그가 그 과실을 떼어 먹고 또 그와 함께 있는 그의 남편에게까지 주매 그도 먹으니라. 七 그리하여 저들 둘의 눈이 둘다 밝아 그몸 벗은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 엉덩치마를 만드니라.

八 날이 서늘할 때(저녁때)야-웨-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로 거니실새 그사람과 밋 그의 처가 그소리를 듣고 야-웨-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속에 몸을 숨기니라. 야-웨- 하나님이 그사람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九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 안에서 당신 소리를 듣고 내가벗은 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내몸을 감추었나이다.』

十 또 그(하나님)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네게 알려주더냐? 내가 먹지말라고 네게 명령한 나무「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十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자 즉 나와 함께 있으라고 당신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무에게서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十二 야-웨-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거 이거 무어냐?』

여자가 말하기를

『배암이 나를 속이길래 내가 먹었나이다.』

十三 야-웨- 하나님이 배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네가하였으니 저주가 네게 나릴지어다 -

모든 짐 짐승들 보담도, 모든 들 짐승들 보담도.

배로 네가 다닐지며, 흠을 네가 먹으리라. -
 네 평생 동안을.
 十五 내가 원수를 맺어 두노라 -
 너와 여인과의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인의 씨와의 사이에.
 그(三人稱單數)는 너의 머리를 상할지며
 너(二人稱單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十六 그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너의 잉태의 괴로움을 더하고 더하리니, 괴로운 가운데 자식을 나흐
 리라. 네 소원은 네 남편에게 그러고 그가 너를주관하리라.』
 十七 그러고 그가『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네가 네안해 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명하여 먹지말라 한 나무「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며
 고역(苦役)으로 거기서 먹을것 얻으리라-
 네 평생 동안을.
 十八 가심뎃불과 또 영경귀를 땅이 네게 낼것이니, 너는 밭에 나물을 먹을 먹
 으리라.
 十九 네 낮에 땅으로 네 밥을 먹으리라 -
 네가 흠으로 도라갈때까지 -
 네 난곳이 거기때.
 『네 본래 흠이로니, 흠으로 도라가리라.』
 二十 그 사람이 그의 안해의 일흠을『해와』(生命)라 불르니 이는 그(안해)가 모
 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廿一 야-웨- 하나님이 아담과 및 그의 안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다.
 廿二 야-웨-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사람이 선과 악을 알어 우리중의,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혹 그의 손
 을 내밀어 이제 생명나무「과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가 염려하노라』하시니
 라. 廿三 그리하여 그가 사람을 내여쪼츠시고 생명나무 길을 직히시기 위하여
 에덴동산 동편에 케투빔과 두루 돌아가는 불꽃검(火焰鋸)을 두시니라.

2.4. 창세기 4:1-26(「十字軍」 第二卷 第一號 [1938년 2월 27일],
 12-13쪽)

『맨처음에』(창세기) 四〇一~二六 金在俊 謹譯

그사람이 그의 안해 해와를 알때 그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야-웨-로 「더부러」(原意未詳) 사람을 얻었다』하더라, 二그러고 다시 그가 그의동생 하벨을 낳았는데 하벨은 양치는자가 되고 카인은 밭가는자가 되니라. 三그후에 카인은 땅의 열매를 야-웨-께 선물로 가져오고 四하벨은 또한 그의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곱(脂肪)을 가져오니라. 그런데 야-웨-께서 하벨과 그의 선물은 돌아보시고 五카인과 그의 선물은 돌아보시지 안으시니 카인이 몹시 화가 나서(原語「불붙어서」) 그낮이 숙어지니라. (不平의表現)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웨네가 화났느냐? 웨 네낮 숙어졌느냐? 만일 네가 잘했으면 「낮이」 들리지 않겠느냐? 네가 만일 잘못했으면 죄가 문에 업드려 「엎고」 있느니라. 그(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나 네가 그를 다스려야하리라.(·點處原文未詳故多異說)』 七카인이 그동생 하벨에게 말하기를 『우리 들로가자!』(古羅典語譯, 스리아譯, 사마리아 校正本の 五書에 다 이 句가 있음)그리하여 저들이 들에 있을때에 카인이 이러나 그동생 하벨에게 「달려들어」 그를죽이니라. 八야-웨-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동생하벨이 어디 있느냐?』하시때 그가말하기를 『나는 아지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의 파수군인가요?』 九그(야-웨-)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했느냐? 네 동생의 피의 소리가 땅으로부터 나에게 부르짖는다!』 十그 입을 벌리고 네손으로부터 네동생의 피를받은 그땅에서 지금 너는 저주를 받았도다. 十一네가 그땅을 밟갈지라도 지금부터는 땅이 그힘을 네게 내지 안을지며 너는 지상(地上)에서 류랑민, 표박자(流浪民, 漂泊者)가 될지니라』 十二카인이 야-웨-께 말하기를 『내 형벌이 너무커서 감당할수 없나이다. 十三보십시오, 오늘 나를 그땅우에서 몰아 내시고 또 당신 안전(眼前)에서 내가 숨게 되었아오며 또 내가 지상(地上)에서 류랑민, 표박자가 되겠아온즉 누구나 나를 만나는대로 죽일것읍니다』 十四그러므로 야-웨-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던지 카인을 죽이는자는 그에게 七배나 원수 갚으리라』 하시고 야-웨-께서 카인을 위하여 한 표를 주사 만나는자가 그를 치지 못하게 하시니라.

十五 그리하여 카인이 야-웨-의 안전(眼前)에서 떠나가 에덴 동쪽 논(流浪의 뜻) 땅에 머무(居住)니라. 十六카인이 그안해를 알때 그가 잉태하여 해녹을 낳다. 그가 한 성읍(城邑)을 건설하고 그 아들의 일흠을 딸아 그성읍 일흠을 해녹이라 부르니라. 十七해녹에게 이라드가 나고 이라드가 메후야엘을 낳고 메후야엘이 매두샤엘을 낳고 메두샤엘이 띠멕을 낳다. 十八띠멕이 두안해를 취하니 첫째의 일흠은 아다요 둘째의 일흠은 질라더라. 十九아다가 야벨을 낳으니 그는 천막(天幕)속에 살며 목축(牧畜)하는자의 아비(元祖)가 되었으며 二十그 동생의 일흠은 유발이니 거문고와 통소 다루는자(古代鉉, 管樂器을使用演奏함을 意

味함)의 아버가 되니라。 二^二질라도 또한 두발·카인을 낳으니 구리와 철(銅鐵)의 온갖 날카로운 쟁기 맨드는 야장이었고 두발카인의 누이는 아나마더라。

二^三파뻬이 그의 두 안해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질라야 내소리 들으라

파뻬의 안해들아 내말을 들으라

나 상하는 사람을 내가 죽였으며

나 상하는 소년을 또한「죽였음이라」

三^三카인이 원수를 七배나 갚을진대

파뻬은 진실로 七十七배나 할것임일세 』

四^四아담이 다시 그안해를 알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일흠을 쉘드라 불르니 이는

『카인이 하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대신 다른 씨를 내게 두심(「두심」이란 原語音「슈드」가 「쉐드」와 類價音인까닭)이라 』 함이라。 五^五쉐드에게도 또한 아들이 나니 그가 그 일흠을 에노쉬(語義「사람」)라 불르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야-웨-의 일흠을 불르기 시작하니라。

3. 장공 김재준 목사의 창세기(1-4장)의 번역 특징

위에서 인용한 장공의 창세기 번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1) 무엇보다도 먼저 쉬운 말로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개역』(1938)과 대조해 보면 말할 것도 없고 『구역』(1911)이나 『게일-이원모역』(1925)과 비교해 보아도 훨씬 쉽다. “맨처음”으로 시작하는 창세기 1:1이 그 예이다.

맨처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어내실쌔 (장공)

태초에 하나님이 텃디를 창조하시다 (구역)

太初에 하나님이 天地를 創造하시다 (게일-이원모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개역)

여기서 “맨처음”이라는 번역어는 파격적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우리말이다. 1950년대에 선종완 신부가 창세기 1:1의 시작말인 이 “브레쉬트”(בראשית)를 “비롯음에”라고 표기하고자 했던 것⁷⁾과 『공동번역』(1977)과 『가톨릭성

7) 1980년대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있었던 「성서와 함께」 전시회에서 선종완 신부의 창세기 번역 육필 원고가 공개된 적이 있다. 이 전시회는 “하느님이 우리말을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경』(2005)이 “한 처음에”라는 어색한 말로 번역한 것과 비교해 보면 장공의 “맨처음”이라는 번역어가 얼마나 신선하고 파격적인지 잘 알 수 있다. 『새번역』(2001)이나 가장 최근에 나온 『쉬운말 성경』(2013)이 여전히 “태초에”라고 하여 『구역』(1911)과 『개역』(1938)의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도 더욱 그렇다. 또한 창세기 1:2도 마찬가지이다.

땅은 뒤섞여 형상없고 (장공)
사이 혼돈하야 공허하고 (구역)
사이 混沌하고 空虛하야 (계일-이원모역)
사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개역)

이 부분에서 『구역』과 『계일-이원모역』 그리고 『개역』의 “혼돈”(混沌)과 “공허”(空虛)라는 번역어는 모두 한문성경 『대표본』(1854)의 용어들이다. 곧 초기 한글성경이 바로 이 한문성경의 번역어를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장공의 창세기는 매우 독자적이다. 영어성경 KJV는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라고 읽었고 ASV는 “and the earth was waste and void”라고 읽은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다. 물론 KJV의 “without form”이라는 말이 장공의 “형상없고”라는 표현과 닮기는 했으나 순서가 달리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 표현을 “뒤섞이다”라는 말로 읽어 될 수 있는 한 쉬운 말로 읽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라는 표현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채우는 창조 모티브는 바빌론 시대부터 비롯되어 성경 곳곳에 나오는 모티브이다.⁸⁾ 그런데 장공의 창세기 번역에는 이 표현이 쉬운 토박이말로만 번역되어 있다.

낱고 뿌려 땅을 가득 채우라 (장공)
싱육하고 번성하야 사이에 충만하며 (구역)
生育이 繁盛하야 사이에 充滿하고 (계일-이원모역)
생육하고 번성하야 사이에 충만하라 (개역)

여기서 장공의 번역이 특이한 점은 다른 초기 한글성경과 달리 무척 소박하면서도 쉽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낱다”와 “뿌리다”와 “가득 채우다”라

8) 창세기 9:1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 또한 잠언의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찬다”(24:3-4, 『새번역』)도 같은 창조 모티브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환진, 『악을 심고 잘 될 리 없죠 선을 심으면 참된 사랑이 돌아옵니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6-17을 참조 바람.

는 일련의 동사를 인과관계로 읽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창세기 2:15의 에덴 동산과 관련된 장면에서도 이렇게 읽는다.

사람을 에덴동산에 갖다 두시고 밭갈고 직히게 하시다 (장공)
 그 사람을 잇쓰러 에덴 동산에 두샤 농스하며 직히게 흐실식 (구역)
 그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샤 農事하며 治理히게 흐시고 (계일-이원모역)
 그 사람을 잇쓰러 에덴동산에 두샤 그것을 다사리며 직히게 하시고
 (개역)

히브리어 “아바드”(*עבד)를 “밭갈다”라는 말로 읽고 “샤마르”(*שמר)라는 말을 “직히다”(지키다)라 읽은 것이다. 이 표현은 영어성경 KJV와 ASV의 “to dress it and to keep it”과도 다르고 한문성경 『대표본』의 “재식”(栽植)이나 “수”(守) 또는 『시주교역』의 “재”(栽)나 “수”(守)와도 다르다. 특히 앞 용어가 그렇다. 아니면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경수지”(耕守之)를 반영한 것일까? 확실치 않다. 그러나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이 앞부분을 “挈其人”(설기인)이라고 하여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뜻으로 읽은 것을 보면 앞에 나오는 “아바드”(*עבד)라는 동사를 “밭갈다”로 읽은 것은 장공의 독자적인 읽기인 것이 분명하다.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을 닮은 것은 오히려 『구역』(1911)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장공이 이 부분을 순 토박이말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거룩하게(聖別) 하셨으니”(창 2:3)와 “땅을 갈(耕) 사람”(창 2:5)이라는 표현과 “머무(居住)나라”(창 4:15) 그리고 “곱(脂肪)”이라는 표현이 그 예이다. 장공은 어릴 적 논어, 대학, 중용 등 사서(四書)를 꽤 정도로 한문에 조예가 깊은 학자였다.⁹⁾ 그런데도 이렇게 한글로 표기하면서 그 뜻을 잘 모를까봐 괄호 속에 “성별”(聖別)과 “경”(耕)과 “거주”(居住) 또는 “지방”(脂肪)이라는 한자말을 집어넣어 토박이말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노력했다.

(2) “야-웨-”(창 2:4)라고 처음 표기한 한글 성경 번역이다. 한문성경 『대표본』(1854)에서 시작하여 『화합본』(1919)같은 중문 성경 그리고 『구역』(1911)에서 비롯되어 아직도 여러 한글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耶和華]라는 용어를 장공은 일찍이 거부했다는 뜻이다.¹⁰⁾ “야웨”라는 표기는 장공이

9) 長空 金在俊 牧師 기념사업회 편, 『범용기 (1) - 새 역사의 발자취』, 金在俊全集 13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2), 19.

10) 일어 성서의 경우 1950년대에 關根正雄이 번역한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욥기』에 “ヤハウェ”(야하웨-)라는 표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홍콩에서 나온 『현대중문역본수정판』(1995)은 거룩한 이름 네 글자(Tetragrammaton)를 “상주”(上主)로 번역하기도 한다.

나중에 쓴 『聖書解説』(1962-1963)에도 등장한다.¹¹⁾

(3)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말놀이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쉬아(여자)라 이를 불르리니 이는 이쉬(남자)에서 취해냈음이라”(창 2:23)가 대표적이다. 『공동번역』(1977)은 이 전통을 계승하여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 하리라”고 읽기도 한다. 하지만 한글로 말놀이가 되지 않기는 『개역』(1938)의 “남자의게서 취하였스즉 여자라 칭하리라”와 마찬가지로이다.

(4)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으려고 했다. “야-웨- 하나님 이 땅과 하늘을 맨드신 날에”라고 하는 창세기 2:4b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구역』(1911)부터 시작하여 『게일-이원모역』(1925) 그리고 『개역』(1938)을 거쳐 『개역한글판』(1961)과 『개역개정판』(1998)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지”(天地) 곧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장공은 “땅과 하늘”로 읽는다. 우리말 성경은 1992년에 나온 『표준새번역』에 와서야 이렇게 읽었다.¹²⁾

“그리하여 카인이 야-웨-의 안전(眼前)에서 떠나가”(창 4:16)가 또한 이에 해당한다. 히브리어로 “바-예제 카인 레-에이네이 아도나이”(בֵּאֵר עַיִן אֲדֹנָי)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물론 “안전(眼前)에서”로 옮긴 부분은 히브리어로 “얼굴 앞에서”(מִלְפָּנָיִם)이다. “얼굴”을 “눈”[眼]이라는 말로 바꾸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되도록 읽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사람이 그의 안해 해와를 알매”(창 4:1)도 『구역』(1911)과 『개역』(1938)은 “아담이 그 안히 해와로 더부러 동침흔지라”로 해석하여 옮겼다. 곧 히브리어 “야다”(*יָדָה)를 “알다”라는 말로 그대로 읽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내가 야-웨-로 「더부러」 사람을 얻었다”라는 이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구역』(1911)은 “여호와와 의 도으심으로 내가 사름을 얻었다”로 해석하여 옮겼고 『개역』(1938) 또한 “내가 여호와로 말매암아 득남하였다”로 약간 달리 읽었다. 또한 『게일-이원모역』(1925)은 『구역』과 『개역』을 합쳐 “여호와 의 도으심으로 내가 得男 亨었다”로 읽는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장공의 번역은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읽어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¹³⁾

11) 『성서해설 (1962-1963)』, 68.

12) 중국어 성경 또한 『중문성경개정판』(1995)에서나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반영하여 읽는다. Joseph Hong, “The Challenges of the RCUV Project”, 『성경원문연구』 17 (Oct. 2005), 157-158을 보라. 일어 성경은 1955년에 나온 『구어역』(口語譯)이 이렇게 읽었다.

13) 잘 알려진 것처럼 이 해석은 해와를 여신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אָדָם)이나 “하-아담”(חַאדָם)을 모두 “사람”이나 “그 사람”으로 읽은 것이다. 대부분의 번역본이 2장 안에서 이 용어를 “사람”과 “남자”와 “아담”으로 나누어 읽는다. 그러나 장공은 이러한 혼란을 피하려고 모두 “사람”으로 읽은 것이 무척 특이하다. 최근에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페미니스트 독법과 무척 유사한 읽기라 말할 수 있다.¹⁴⁾

(5)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을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기려고 하였다. “몹시 화가 나서”(창 4:5)는 장공이 괄호 속에 “原語 「불붙어서」”라는 말을 괄호 속에 집어넣고 설명했듯이 히브리어로는 “불붙는다”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읽은 것이다.

(6) 본문 비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읽었다. 창세기 4:8의 “우리 들로 가자!”라는 부분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데 타르굼을 위시한 고대 번역본에는 들어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古羅典語, 스리아譯, 사마리아校正本の 五經에 다 이 句가 있음”이라는 말로 괄호 속에 집어 표기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내가 야-웨-로 더부러(原文未詳) 사람을 얻었다”(창 4:1b)도 그 예이다. 히브리어로 “카니티 이쉬 에트 아도나이”(קָנִיתִי אִישׁ אֶת־יְהוָה)인데 여기서 “에트”(אֶת)가 “함께”나 “더붙어”라는 뜻이지만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기에 “더부러”라고 읽었지만 괄호 속에 “원문미상”(原文未詳)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설명한 것은 바로 본문 비평의 한 예이다.

(7) 신학적으로 당시로서 가장 최근의 이론을 받아들여 번역한 한글 성경 본문이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1을 상황절로 읽은 것이다. “맨처음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맨드실새 땅은 ...”의 “맨드실새”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읽기는 『공동번역』(1977)과 『새번역』(2001)의 난하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해석이다. 장공은 1930년대에 이미 이러한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문서설을 받아들여 창세기 1:1-2:4a와 2:4b-24를 나누어 번역한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말 성경은 『공동번역』(1977)에 와서야 이러한 전통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장공이 최근의 이론으로 성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의 책 『聖書解説』(1962-1963)을 보아도 분명하다.¹⁵⁾

14) 필리스 트리블,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유연희 역 (서울: 태초, 1996).

15) 그의 『성서해설』(1962-1963)은 버나드 앤더슨(Bernard Anderson)의 『구약이해』(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1952)를 주로 참조하여 쓴 책이다.

(8) 번역주를 할주(割註)로 처리한다. 한문성경 『시주교역』(1902)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아주 드물게 『대표본』(1854)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주교역』(1902)에 와서야 이러한 편집체계가 보편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개”(창 2:6)라는 번역어를 “홍수”(洪水)라고 읽을 수 있다고 하여 괄호 속에 집어넣어 제시한 것이 그 한 예이다.¹⁶⁾ 그리고 “동산”(창 2:8)도 괄호 속에 “공원”(公園)이라는 한자말을 집어넣어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해와”는 괄호 속에 “생명”이라는 뜻을 집어넣어 읽기도 하였다. 특이한 곳은 창세기 3:15의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할지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리라”는 부분이다. 앞의 “그”와 뒤의 “그”는 우리말로 구분이 없이 사용되나 히브리어로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앞의 “그”에는 “삼인칭단수”(三人稱單數)로, 뒤의 “너”는 “이인칭단수”(二人稱單數)라고 한자말로 괄호 속에 집어넣어 구분하고자 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논”(창 4:15)이라는 지명에는 “流浪의 뜻”이라는 번역주를 괄호 속에 집어넣어 설명하고 있다.

(9)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것을 꺾쇠괄호(「」) 속에 집어넣어 원문에 없지만 그러한 뜻이 들어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10) 고유명사의 경우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려고 노력한 성경 본문이다. “카인”이나 “파멕” 또는 “질라”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개역』은 “가인”과 “라멕” 그리고 “실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하바”나 “하와”로 되어 있는 이름(חַוָּה)의 경우 “해와”(창 3:20)로 읽은 것은 『구역』(1911)을 따른 경우이다. “하벨”(חַבֵּל, 창 4:2)과 똑같이 히브리어 “ㅎ” 소리가 나는 글자(חַ와 ח)에 “아” 소리가 밑에 붙어있는데 여기서는 일관성을 잃고 음역하였다.

(11) 『구역』(1911) 전통을 그대로 잇는다. “하나님”이라는 번역어가 대표적이다. “하느님”이나 “신”(神) 또는 “상주”(上主)나 “상제”(上帝) 그리고 “천주”(天主)나 “주재”(主宰) 등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조선 개신교회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게 여기시다”(창 1:4, 18, 25)와 “어두움을 밤이

16) 영어성경 KJV부터 시작하여 우리말 성경에 들어온 이 “안개”(mist)라는 번역어는 요즘에 와서야 “물”(『새번역』)이나 “ 시내”(a stream, CEB)로 읽는 전통이 생겨났다. 그런데 장공은 이미 1930년대에 이러한 사실을 번역 주에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장 최근에 나온 한 글성경 『쉬운말성경』(2013)도 여전히 전통적인 “안개”로 읽는다.

라 부르시다”(창 1:5)와 “낳다”(창 4:16) 그리고 “그렇게 되다”(창 1:11, 15, 24)나 “하시다”(창 1:22, 26)나 “지어내시다”(창 1:27)나 “그의 하신 일을 마추시다”(창 1:31)와 “맨들리라 하시다”(창 2:18)와 “떼꾸시다”(창 2:31) 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 문장이 시제가 없는 “...다”로 끝난다. 이러한 종결어미는 『구역』(1911)의 “태초에 하느님이 텃디를 창조흐시다”(창 1:1)와 같이 『구역』(1911)의 전통을 이은 종결어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유명사 “해와”(창 4:1)와 “해늑”(창 4:16)의 경우도 『구역』(1911)을 따른 경우이다. 또한 “표박자”(창 4:11)는 『구역』(1911)의 “표박”(漂泊)에 “자”(者)자를 덧붙여 읽은 표현이다.

(12) 한문성경 『시주교역』(1902)의 용어를 반영한 것을 알 수 있다.¹⁷⁾ 이는 위의 창세기 번역과 거의 같은 해에 나온 『개역』(1938)과도 같은 전통에 서있는 번역이라는 점에서 무척 특이한 예라 말할 수 있다.¹⁸⁾ 같은 한문성경의 영향을 받았지만 번역 내용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13) 당시의 한글 표기법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창세기 1:1의 “깊은 바다 우에”와 “그 물 우를”의 “우”는 “위”[上]라는 뜻으로 1880년에 나온 『한불즈던』(61)과 1890년에 나온 언더우드의 『한영즈던』(24)에도 나오는 용어이다. 요즘은 “뱀”으로 표기하는 “배암”(창 3:1)과¹⁹⁾ “아내”로 표기하는 “안해”(창 3:17) 또는 “이름”이라는 뜻의 “일흠”(창 4:15)도 이 경우이다.

(14) 함경도 사투리가 들어 있는 성경이다. “맨드실새”(창 1:1)와 “맨들자”(창 1:27)와 “맨드신”(창 1:31; 2:3) 그리고 “맨드시던 날에”(창 2:4)와 “맨들리라”(창 2:18) 그리고 “비저 맨드시고”(창 2:19)가 그 대표적이다. 곧 “만들다”를 “맨들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1880년에 나온 『한불즈던』(韓佛字典, 221)에는 “망그다”나 “믄드다”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등장한다. 또한 1890년에 나온 언더우드의 『한영즈던』(韓英字典)에도 “믄드오”라는 뜻을 지닌 말

17) 장공이 이영민 목사에게 1985년 정초에 써주었다는 휘호는 한문성경 『시주교역』(施主教譯 또는 쉐레셰브스키 쉬운 문리역, 1902)의 이사야 42:3-5이다. 이영민, “그렇게 크신 분”,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 『장공 이야기』, 장공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3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62. 이 또한 장공의 창세기 번역이 『시주교역』(1902)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간접증거이기도 하다.

18) 이환진, “쉐레셰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 성경 - 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8 (2011년 4월), 35-57을 참조하라.

19) “배암”이라는 말은 1880년에 나온 『한불즈던』(韓佛字典, 309)의 “빅암”이라는 표기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construct”(55쪽)와 “make”(164쪽) 그리고 “manufacture”(165쪽) 항목의 번역어로 등장한다.

창세기 2:20의 “집증생”이나 “들증생”의 “증생”도 여기에 해당한다. 백석(白石)의 시에도 “증생”이라는 말이 “짐승”이라는 뜻으로 등장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²⁰⁾

이와 더불어 시인 백석(白石)의 고향이 함경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무척 흥미롭다. 백석의 시에는 “골갯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골짜기의 논”이다.²¹⁾ 그런데 장공의 창세기 2:10에는 “그리로부터 갈라져서 네 골시 되었는데”라는 표현 속에는 “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흥미롭다.

4. 나가는 말

장공이 직접 쓴 회고록 『범용기』에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²²⁾

“나는 구약을 전공한다는 생각이었기에 히브리어 시간은 모조리 택했다. 따라서 셈언어(Semitic Language) 주임교수인 켈러박사 교실에 치우드나들게 됐다. 구약개론, 구약원전 강독도 그분이 맡았었고 교장인 켈소박사도 구약전공이어서 말하자면 웨스턴은 구약이 세다는 평이었다.”

장공은 미국 프린스턴(Princeton)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다 피츠버그에 있는 웨스턴(Western) 신학대학원으로 학교를 옮겨 공부한다. 위의 인용처럼 장공은 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모세오경과 예언서까지 원문으로 꼼꼼히 읽었다는 얘기도 있다.²³⁾ 곧 장공은 앞의 본문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히브리어에서 직접 창세기 앞부분을 번역했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에서 한글로 직접 번역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위의 본문 분석은 내적 증거이고 위의 인용은 외적 증거라 말할 수 있다.

1937년과 1938년은 『개역』이 막 나올 무렵이다. 지금도 우리 한국 개신교

20) 李東洵 編, 『白石詩全集』(과주: 창비, 1987), 207.

21) Ibid., 189.

22) 『범용기 (1)』, 113.

23) 또한 박봉량,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 『장공 이야기』, 장공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3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47.

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한글판』(1961)과 『개역개정판』(1998)은 이 『개역』(1938)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인데, 이 『개역』보다도 훨씬 더 쉽고 또 분명하게 원문에서 번역한 성경 본문이 바로 장공의 창세기 번역이다.

장공은 『새번역 신약전서』(1967)의 문장위원으로도 활동한다.²⁴⁾ 곧 장공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곧바로 창세기 앞부분을 번역하고 한신대에는 퇴하고서 이 신약의 문장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장공은 성경 번역가로서 자신의 문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또한 장공은 한학에 능하여 한신대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동양고전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문성경과도 친숙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즐겨 읽던 한문성경은 아마도 『시주교역』(1902)이었던 듯하다.

이 한문성경의 번역어가 위의 창세기 번역에도 가끔 눈에 띄는 것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땅을 갈(耕) 사람이 없더라”(창 2:5)나 “사람이 생령(生靈)이 되지라”(창 2:7)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괄호 속에 들어있는 한자어는 한문성경 『시주교역』(1902)의 용어이다. 물론 “그 동산을 축이게(灌漑) 되었으며”(창 2:10)의 “관개”(灌漑)와 “벽옥”(碧玉, 창 2:12)은 『대표본』(1854)의 용어이다. 곧 장공은 창세기를 번역하면서 한문성경 가운데에서는 『대표본』과 『시주교역』을 주로 보았던 듯하다.

하지만 장공의 고유한 번역어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 “선물”(창 4:3-4)이나 “표박자”(漂迫者, 창 4:11, 12) 또는 “안전”(眼前, 창 4:13, 15)이나 “성읍”(城邑, 창 4:16)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눈 앞”이라는 뜻의 “안전”(眼前)은 간결하면서도 원문(밀리프네이, מלפני)을 정확하게 반영한 탁월한 번역어이다. 또한 “선물”(창 4:3-4)이라는 번역어도 히브리어 “민하”(מנחה)를 옮긴 말인데, 매우 훌륭한 번역어이다. 대부분 이 말을 “예물”로 번역하나 장공은 여기서 “선물”이라는 과격적인 해석을 내놓는다. 이렇게 한자말 말고도 토박이말도 많다. “곱(脂肪)”(창 4:4)이나 “아버지(元祖)”(창 4: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서 번역가로서의 그의 관심은 각 성경역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장공이 쓴 『성서해설』(1962-1963)의 제6장은 “성서와 그 번역본”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장공은 고대역인 칠십인역과 라틴어역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세의 각국어 번역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²⁵⁾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어 역(韓國語譯) - 제이본(諸異本)”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부분에서는 『백홍준-로즈 역본(譯本)』(마가복음, 1887년)과 『이수정 역본』(마가복음 언해, 1884년)의 본문을 먼저 인용한다. 그가 붙인

24) 정용섭, “장공 선생과 나”, 『장공 이야기』, 157-158.

25) 『聖書解說』(1962-1963), 13-21.

역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 번역가의 주체성을 강조하여 이 『예수성교전서』(마가복음, 1887년)라는 이름 대신 “백홍준”이라는 이름을 먼저 붙여 『백홍준-로즈 역본(譯本)』이라고 부른다. 이뿐만 아니라 『아펜젤라 역본』(누가복음, 1890년)과 『펜워 역본』(요한복음, 1893년) 그리고 『언더우드 역본』(마가복음, 1905년) 같은 선교사들의 복음서 번역 일부를 일일이 인용하여 비교한다. 또한 『위원회 역본 결정판』(1906년)이라고 장공이 이름붙인 『구역』(신약)과 유성준의 국한문 『구역』(신약, 1906년) 그리고 『개역본 한글판』과 같은 공인번역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문장가로 활동한 『새번역 신약전서』(1967년)이 복음동지회의 번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덧붙여 마태복음의 일부를 인용한다. 성경 번역가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각 역본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지식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장공은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일어나던 1932년에 귀국한다. 미국의 경제상황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던 듯하다.²⁶⁾ 그래서 구약학으로 박사 학위는 받지 못했으나, 그의 히브리어 실력은 뛰어났다. 그가 귀국하던 1930년대는 『개역』(1938)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일 이 때 『개역』(1938) 번역작업에 장공이 참여했다라면 『개역』(1938)은 달라졌을 것이다. 쉽고도 신선한 번역이 장공의 창세기 번역이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우리의 언어생활도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번역위원회에서는 장공을 번역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 이 당시 선교사 일변도의 번역 작업 때문인데 선교사들의 편견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껏 나온 한글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번역으로 평가받는 『공동번역』(1977)은 늦봄 문익환 목사의 역할이 컸다. 그런데 이 『공동번역』(1977)의 산과 역할을 한 늦봄은 간도 용정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적 「십자군」에 실린 장공의 창세기 번역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다. 문익환 목사가 성경 번역가와 시인이 된 데에는 장공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늦봄의 친구인 민족시인 윤동주도 장공의 글을 분명히 읽었을 것인데,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장공의 역할은 지대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장공의 “맨처음”(창세기 1:1)이라는 번역어는 성경 번역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과시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의 머리말에서 인용한 장공의 시편 137편 번역은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정교하고 아름답다.²⁷⁾ 또 간결하다. 이렇게 장공은 성경 번역가이다.

26) 『범용기 (1)』, 118-123.

27) 읍기와 전도서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한 장공의 신학 논문에도 그 자신의 개인 번역이 실려 있다. 『구역』(1911)을 따른 흔적이 많기는 하나 아름답고 또 간결한 번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Keywords)

김재준, 장공, 성경 번역가, 창세기(1-4장), 십자군.

Kim Jae-Joon, Chang-Gong, a Bible translator, Genesis (chs. 1-4), Crusade.

(투고 일자: 2013년 2월 13일, 심사 일자: 2013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2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舊新約聖經』, 美國 施約瑟 新譯, 上海: 大美國聖經會, 一千九百有二年. (S. I. J. Schereschewsky, trans.,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Shanghai, China: American Bible Society, 1902) (시주교역)
- 『구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구역)
- 『文理 舊新約聖書』, 聖書公會. (British & Foreign Bible Society, Shanghai, 1933, [Ed. No. 2908] *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원출판년도 1854년) (대표본)
-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가톨릭성경)
- 『聖經 現代中文譯本修訂版』, 香港: 香港聖經公會, 1995.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개역한글판)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개역개정판)
- 『성경전서 세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세번역)
- 『성경 개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38. (개역)
- 『쉬운말 성경』, 서울: 성서원, 2013. (쉬운말 성경)
- 『新譯 新舊約全書 奇一博士譯』, 京城: 基督教彰文社, 1925. (개일-이원모역)
- 김재준, 『범용기 (1) - 새 역사의 발자취』, 金在俊全集 13, 長空 金在俊 牧師 기념사업회 편,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2.
- 김재준, “맨처음에. (창세기) 一〇一~二〇三”, 『十字軍』 第一卷 第三號 (1937년 9월 13일), 22-24.
- 김재준, “맨처음에 (2). 창세기 二〇四~二〇二五”, 『十字軍』 第一卷 第四號 (1937년 10월 29일), 18-19.
- 김재준, “맨처음에 (3). 창세기 三〇一~三〇二四”, 『十字軍』 第一卷 第五號 (1937년 12월 14일), 17-20.
- 김재준, “맨처음에 (4). 창세기 四〇一~四〇二六”, 『十字軍』 第二卷 第三號 (1938년 2월 17일), 12-13.
- 김재준, 『성서해설 1962-1963』, 金在俊全集 6, 長空 金在俊 牧師 기념사업회 편, 서

을: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2.

김재준, “위로의 말씀 -주님을 쳐다보라-”, 「十字軍」 第一卷 第四號 (1937년 10월 29일), 1-5.

박봉량,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 『장공 이야기』, 장공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3,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38-49.

李東洵 編, 『白石詩全集』, 파주: 창비, 1987.

이승원 주해, 이지나 편, 『백석시집』, 서울: 깊은샘, 2006.

이영민, “그렇게 크신 분”,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 『장공 이야기』, 장공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3,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57-62.

이환진, “쉐레쉴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 성경 - 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8 (2011년 4월), 35-57.

이환진, 『악을 심고 잘 될 리 없죠 선을 심으면 참된 사랑이 돌아옵니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정용섭, “장공 선생과 나”, 장공 김재준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편, 『장공 이야기』, 장공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3,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1, 153-158.

필리스 트리블,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유연희 역, 서울: 태초, 1996.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and Nelson, 1985. (원출판년도 1661년) (KJV)

Holy Bible. Common English Bible, Nashville: www.CommonEnglishBible.com, 2011. (CEB)

Hong, Joseph, “The Challenges of the RCUV Project”, 「성경원문연구」 17 (Oct. 2005), 148-177.

Les Missionnaires de Corée, 『한불즈던 韓佛字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C. Lévy, Imprimeur-Libraire, 1880.

The JPS Hebrew-English TANAKH: The Traditional Hebrew Text and the New JPS Translation - Second Edition,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NJPS)

Underwood, Horace Grant, 『韓英字典 한영즈던』(*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Yokohama: Kelly & Walsh, L'd., 1890.

<Abstract>

**Som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lation of Genesis 1-4 in “Crusade
(1937-1938)” by Rev. Kim Jae-Joon**

Prof. Hwan 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Reverend Kim Jae-Joon,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Hanshin University, translated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one through four) into Korean from the Hebrew original in the years of 1937 and 1938. His translation was published four times in a row in a Korean journal called “The Crusade”, which is named Ship-Jah-Goon(십자군, 十字軍) in Korean. It was distributed in Yong-Jung (용정, 龍井) which is loc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Manchuria, China. In those years he served as a junior high school teacher there. At the same time he was working as the chief editor of the periodical mentioned above. Some characteristics of his transl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His translation of Genesis, though partly translated, is easy to read compared to the Korean Revised Version, which was released in the same year or so.

(2) It seems to be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that adopts “Yah-weh” instead of “Jehovah” or “Yehowah”, which is publically accepted by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3) He tried to deliver the Hebrew pun in Genesis 2:23 (“ish” and “isha”) with transliteration because translating them cannot deliver its impact.

(4) The Hebrew Masoretic text is rendered as literally as possible. For example, Genesis 2:4b in original Hebrew reads: “In the day Yahweh God created earth and heaven.” The word order of the sentence is held in his transl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Hebrew “adam” is thoroughly translated as “human” in Genesis chapter 2, contrary to other Korean translations such as the Old Version and Revised Version.

(5) Hebrew idioms are translated into natural Korean. Genesis 4:5 reads “and it was kindled to Cain”, while it is read in Korean, “Cain was very angry” or so.

(6) The scholarly finding from textual criticism is reflected in his translation.

For example, the Massoretic Genesis 4:8 does not have “Let us go out to field.” But old translations such as the Old Latin version, the Syriac translation like Peshitta, and the recension of the Samaritan Pentateuch do. This explanation is added to his translation in parenthesis.

(7) The most updated scholarly opinion concerning Genesis 1:1 is reflected in his translation. It is taken as a circumstantial phrase so that he reads it as follows: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8) Faithful transliteration of proper nouns to original Hebrew appears here and there. Compared to the Old Version in Korean (1911), his translation shows closer affinity to the original pronunciation.

(9) Nevertheless, it seems that his translation of Genesis follows the Old Version in Korean (1911), more specifically in its ending style.

(10) Korean orthography of his time those days frequently appears in his Genesis translation. Such examples are “Bae-ahm”(배암) for “Baem”(뱀, snake) and “Ahn-hae”(안해) for “Ah-nae”(아내, wife).

(11) It has proper expressions us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 at the time.